

11,12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 와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산골의 갈릴리 교회와 개척교회인 벤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벤엘교회가 개척되고 첫 전도의 열매인 조세핀 자매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곧 임종하실 것 같다하여 교인들과 함께 심방을 갔습니다. 아주 오래 전 몸이 건강하실 때는 교회를 다니셨다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작은 숨소리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참 귀한 모습은 어려운 살림에도 가장 깨끗한 방에 가장

좋은 침대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대소변을 자녀들이 다 받으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과 부모님 병수발로 바쁘셨던 조세핀 부모님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심방에 함께 해준 교회 가족들이 이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는 갈릴리교회 한 주는 벤엘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스와힐리어 설교이지만 항상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을 체험합니다.



갈릴리 교회는 정말 산골입니다. 1-2시간 걸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큰 기쁨이기에, 집에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일 아침 아이들에게 ‘우지’라는 죽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이들 중엔 죽을 먹으러 먼 길을 걸어 교회에 옵니다. 죽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에 나귀를 몰고 물을 길어오거나 염소나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이 방학동안 이툼비 읍내에 있는 자립 교회의 반주자인 켄 형제를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키보드를 가르치는 음악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악보 없이 가르치고, 악보 없이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음악적 재능이 부러울 뿐입니다. 아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해서 이툼비 땅에 울려 퍼질 것을 아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찬양이 끊임 없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람베를 통해서 키보드와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이 생기니, 예배 시간이 정말 뜨겁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내에 창고가 안전하지 않아 예배 전 후에 항상 이렇게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치우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제너레이터나, 스피커, 음향믹서는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 힘쓸 사람들이 없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도우며 설치와 정리를 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찬양팀한다고 주일마다 악기를 나르고 설치하던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이 시간들이 귀한 섬김의 시간으로 기억 되길 기도합니다. 짐을 이것 저것 많이 실는 차도 고생입니다. :) 심방을 함께 갈 때는 5인승 차에 셀 수 없는 이들이 함께 타고 기쁨으로 방문을 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속한 AIC(African Inland Church)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무왕기 전 지역 교회들의 청소년들을 초대하고, 고등학교를 빌려 5일간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5불 정도의 참가비가 있어 산골 갈릴리 교회 청소년들은 참가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교회 내에서 청소와 가시 제거 등 일을 만들어,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참가비를 마련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평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가축사역

이툼비 지역은 우기때 잠시 말고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가뭄이나 가정에 우한 때문에 가축을 잃게 되면 삶이 어려워 집니다. 가정에 암, 수 염소를 나누고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 소산은 어려운 교회 가정에 이어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가축의 구입은 가까운 무윙기 시장보다 차로 2시간 더 가면 나오는 Nuu 시장으로 찾아 갑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무윙기 시장보다 30%는 더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마리를 사면 한 마리가 더 생기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입이 끝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는 순간 가격이 두 배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지 교인이 돈이 지불하고 구입이 끝나면 그 때 제가 내려서 함께 제 차에 염소들을 실습니다.



염소를 태우고 산 속 교우 집까지 3-4시간을 타고 가서 내릴 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염소들이 변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 몰랐습니다.(오른쪽 사진은 확대하지 마세요.) 동글동글한 것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냄새는 계속되고... :)



차에 염소 뜻이 가득하고 그 잔향이 계속 되도, 아이들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나눌 수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이는 유진이 보다 한 살 어린 5살 벤엘교회 막내인 비트리스입니다. 아빠는 키루이 형제입니다.



벤엘교회 개척 멤버인 가정입니다. 벤엘교회가 양철로 지어질 때 몸으로 뛰어준 가장 수고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이 없다며, 매주 1시간 일찍 와서 교회 청소와 정리 그리고 예배 후에 끝까지 남아서 모든 정리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키루이의 어머니이십니다. 코에 암이 걸려서 코를 절단한 상황이십니다. 이 치료 때문에 가정의 모든 가축을 팔게 되었습니다. 치료도 중단 되었습니다. 거기에 키루이 형제가 먼 곳으로 일을 갔다가 차 사고가 나면서 가세가 더 기울어 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마음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부엌(왼쪽사진)에서 연기가 나더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파띠’라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빈대떡 같은 것입니다. 처음 심방 다닐 때는 간단한 간식인 줄 알았는데, 귀한 손님 오실 때만 먹는 가장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의상 준비하신 것을 다 먹으면 아이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만찬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기도하며, 저도 할머니도 아빠 엄마도 울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아이들은 케냐나 어디나ㅎㅎㅎ) 막내 비트리스 기도제목이 염소가 다시 생기는 것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방문한 내내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가축 사역을 위해서 헌금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축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귀하고 지혜롭게 사용해 나가겠습니다.

<기도제목>

1. 갈릴리교회, 벤엘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가축사역, 우물사역, 장학사역, 모스크 사역, 산골 아이들 배움 사역을 통해서 삶의 소망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3. 저희 가정 먼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